

'전국 최고 품질' 영암 무화과, 첫수확



전국 최대 무화과 생산지(전국 재배면적의 55.3%, 420ha)인 영암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무화과 수확이 시작됐다.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8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된다.

시설하우스 재배 약 1개월 가량 생산 빨라 당도 3배 높아 달콤하고 찰지고 향도 깊어

다. 지금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어 약 1개월 가량 빨리 생산된 것. 특히, 이번에 수확한 영암 무화과는 당도가 일반재배 보다 3도 가량 높아 달콤하고 찰지고 향이 깊다. 최근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개

당 무게 120g, 당도 15도 이상으로 최고 품질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이도 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되며 칼슘, 비타민 등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상호읍에 사는 편인철 농가는 이번 비닐하우스에서 첫 수확된

무화과가 1kg에 5,500~6,500원으로 거래되었다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채벌레가 없는 고품질의 무화과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암 무화과는 먹기 쉽고 식품영양학적 가치까지 높은 여름철을 대표하는 국민 과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무화과의 품질 고급화와 수확시기 분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안정적 생산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친환경 왕새우양식 위한 배출수 검사

신안군이 올해 초 전국 최초의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기준 고시를 마련한 가운데 관내 축제식 새우양식장 338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수 수질과 갯벌퇴적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부터 새우양식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육수가 인근 해역(갯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불확실한 추측성 논란 사실확인 등 물론 친환경 새우양식 육성 일환으로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대다수의 양식장이 수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전년도(배출수 수질검사 2회)와 달리 기존 배출수 수질검사 외 배출수 인근 갯벌퇴적물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배출수가 갯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100% 감면 기간 연장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저기영농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주중 기종별 1대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현재까지 6,023농가에 6,690건을 임대해 1억2천2백만 원의 임대료 감감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전년 대비 14% ↑ 55만7천주 가을배추 공급 9월 신청농가에 분양 예정

영광군은 지난 7. 14~17. 17. (4일간)동안 전년 대비 14% 증가된 약 4,350만(55만7천 주)의 가을배추 육묘 접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신청량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지만 100% 공급 예정이다. 배추 한판당 가격은 5천 원으로 동결하여 고품질의 배추묘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상순 파종된 가을배추는 25일간 병해충 방제·비료주기·물주기 등의 육묘관리를 거쳐 9월 상순부터 신청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을배추는 정식 10~15일 전 석회를 넣고 포장을 고른 후, 1주일 전까지는 밑거름·완숙퇴비·토양살충제를 뿌리고 로타리 작업을 마쳐야 하고, 이랑폭은 60~65cm, 포기사이는 30~45cm 정도로 만들어 정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교통 불편 지역 공공형 '낭만버스' 운행

용해 행복주택·대양산단·고하도 등 3개 노선 운행

목포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용해 행복주택, 대양산단, 삼학도, 고하도 지역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형 버스인 '낭만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공공형 버스는 2019년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으로 적자가 심한 노선이나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에 국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공공형 버스 4대를 투입해 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지난 달은 2,7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2인 버스는 삼학도 항구주차 및 관광유람선,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역 등을 경유하여 관광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낭만버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과 같다. 자세한 노선도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행정과(270-8338)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 11번 : 석현동 ~ 버스터미널 ~ 용해 행복주택 ~ 대양산단 ~ 휴추모관 (운행시간 06:00 ~ 22:30, 배차시간 약 2시간, 1대 운행)
- 22번 : 삼학도 ~ 만호동 ~ 목포역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행시간 07:30 ~ 23:00, 배차시간 약 1시간, 2대 운행)
- 33번 : 삼학도 ~ 목포역 ~ 대양산단 ~ 목포대교 ~ 고하도 (운행시간 05:30 ~ 21:20, 배차시간 약 2시간, 1대 운행)

시 관계자는 "공공형 버스인 낭만버스 투입으로 그동안 교통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형 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여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전 노선 67.64km

무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 노선 67.64km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표지판과 노면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영산강 철호리 상사바위길 구간은 자전거 사고위험 구간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어 집중 안

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등을 7월 중 확충할 계획이다. 영산강 국토중주 우회길인 상사바위길은 차량과 자전거가 공유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좁은 도로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노선으로, 라이너들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름철 무성해진 도로 주변 잡풀과 나무 가지에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